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0호 [부록 제25293호] 주체105(2016)년 5월 29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 진행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대책과 실천방도 토의, 총정의 200일전투 선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투합을 높이 들고 혁명의 열매를 수확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집판형에 신약같이 펼쳐나선 원만한 혁명적기상이 새로운 대고조전군기에 새치게 나타났고있다.



제, 무력기관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목표들을 앞당겨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시의 시명파 분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투합을 높이 들고 혁명의 열매를 수확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집판형에 신약같이 펼쳐나선 원만한 혁명적기상이 새로운 대고조전군기에 새치게 나타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열높은 우리 당력사에 승리와 영광의 대포로 빛나게 아로새겨진 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의 총주축승리를 위한 드높지 않은 기쁨을 마련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투쟁강령을 제시하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전위투사로서의 시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한 온 나라 전체 일군들은 총정의 70일전투를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를 계속 힘차게 고조시켜 력사적인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가 5월 28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발전전을 위한 단계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기간에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예내거기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발전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화에도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높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는 5개년전략수행의 중요요령과 과업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요요령인 전력문제를 푸는데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국가의 경제조직적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다. 「각각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발전전투에 따르는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달려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중심고리에 혁명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는 방법으로서 작전하고 지휘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배당 부문과 단위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들을 확립하면서 공업, 농업, 수공업부문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는 자강력제일주의의 원칙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시의 시명파 분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내각총리 박봉주동지가 연석회의를 결속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연석회의에서 당 제7차대회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대책과 실천방도들이 충분히 토의토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석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제시하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들을 얼마든지 집행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이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들의 연석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이 실현성있게 되고 이어지게 됨으로써 당대회결정을 결사관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들을 얼마나 실현성있게 하고 이어지게 하는가이다. 모든 일군들은 군대와 인민을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서 불타오르며 불타오르는 애로와 난관을 대승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발휘하여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기회를 철저히 확보하여야 한다.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받아들이고 과학기술발전의 선진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향일의 연전속전정진, 전회의 과학리력명진, 원리사대 과학기술의 혁명적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핵 및 우주과학자들이 발휘한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따라배워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을 의지하여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우선 관철하여야 한다. 당대회과업관철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연석회의에서 실현전략적으로 토의된 문제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하게 집행해나가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발전계획부터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총정의 70일전투를 통하여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창조정신을 따라배워 당에서 선포한 혁명적기풍을 이어 받들고 투쟁에서 총정수를 부르는 것을 비롯하여 온 사회에 과학기술학습기풍을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지식과 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중등일반교육의 교양체제를 완비하고 대학들의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높이고 전사회의 교육부문을 적극 도약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적사상과 불멸의 업적, 교배한 품종을 깊이 있게 향상한 명작, 명작들을 창작하며 특히 영화예술부문이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도적역할을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인구의 평균수명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에게 더욱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데서 당의 예방의학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체육기술을 하루빨리 발전시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부문별회의들에서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으며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부문별회의들에서 토론한 당, 국가, 경

【조선중앙통신】

